우리은행에 닷새간 75만회 해킹 시도, 5.6만건 접속 성공

해킹 갈수록 지능화… 생체정보 등 인증수준 높여야

우리은행, 해킹시도 IP 차단
사이버수사대에 수사 의뢰
편의성 중점에 안전성 문제

우리은행은 지난달 29일 한 IP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해 인터넷 뱅킹 계좌 5만6000개가 로그인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한 IP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한 부정 로그인을 시도해 5만6000명의 계정이 속수무책으로 접속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행히 금전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학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가 금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은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용자 개인도 아이디·패스워드 설정에 주의해야 하며, 은행도 인터넷 뱅킹 로그인 시 인증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은행권, 해당 IP 전면 차단

우리은행은 지난달 23~27일 닷새간 동일한 IP로 약 75만회에 걸쳐 인터넷뱅킹 접속 시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은행 측에 따르면 이 중 5만6000여 회는 로그인에 성공했다. 다만 인터넷뱅킹으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추가 정보 입력이 필수여서 출금 피해는 없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난달 27일 해킹시도를 한 IP를 차단하고 금융보안원에 이상거래 사실을 알려 관계기관 및 금융사에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금융보안원으로 해당 사실을 접수함에 따라 전 은행으로 사건의 해당 아이피가 공유됐다. 전파받은 전 은행권은 아이피를 모두 차단 조치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의 부정로그인 사태에 타 은행들도 유사한 공격이 발생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인 조사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해킹시도에 의한 공격이나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크리덴셜 스터핑은 무엇?

우리은행은 해당 IP 이용자가 '크리덴셜 스터핑'을 통해 부정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현종 교수에 따르면 크리덴셜 스터핑은 공격자가 이미 입수한 아이디·비밀번호를 활용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크리덴셜은 개인을 인증하는데에 활용되는 식별·인증정보의 조합을 말하며, 스터핑은 악의적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반복적으로 해당정보를 입력해서 인증을 시도하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공격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러 사이트에서 접속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이를 통해 7.5%(5만6000/75만)의 계정이 해커로부터 부정로그인을 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염흥열 교수는 "웹 사이트가 평문으로 패스워드를 저장한 상태에서 해커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다면,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격자가 접속 시도한 아이디를 확보해 해당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공격을 통해서 입·출금 등의 금융사고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출금·송금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보안카드·OTP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공격을 통해 고객의 계좌정보(잔액·최종거래일·대출규모) 등이 유출 가능하고 이는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은 개인들이 은행거래의 아이디·비밀번호와 다른 서비스의 아이디·비밀번호를 같은 형태로 만든 것도 있지만 75만번의 시도가 이뤄지는 동안 해당 시도가 이뤄지는 공격자의 컴퓨터가 조기에 차단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 고객들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거나 공공기관의 경우엔 접속 IP가 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접속시도를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IP를 감시목록에 올려놓았다. 전체의 절반을 넘는 40만건가량의 접속 시도가 발생한 27일에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보안 위협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의 인증 수준의 고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너무 이용자의 편리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인증방식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사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은 단순 계좌 조회라도 아이디·패스워드 외 OTP 와 같은 멀티 팩터 인증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최근 파이도(FIDO)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개발된 인증방식인 생체 정보와 공개키·암호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방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KB금융, 카누 국가대표팀 공식 후원

8월 개최 '아시안게임' 등 응원

KB금융그룹 윤종규 회장(왼쪽)이 대한카누연맹 김용빈 회장과 포즈를 취했다.

KB금융그룹은 지난 6월 2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윤종규 회장과 대한카누연맹 김용빈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카누 남녀 국가대표팀에 대한 후원을 협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인 '스프린트, 슬라럼, 용선(드래곤보트)' 등 3개 종목과 카누의 다른 6개 종목인 '와일드워터, 마라톤, 폴로, 세일링, 투어링, 래프팅'을 후원하게 된다.

특히 8월 개최될 아시안게임 여러 경기 중 '카누 용선(드래곤보트)' 종목에는 뛰어난 기량을 가진 남북한 선수들이 단일팀으로 참가할 예정이어서 메달 획득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윤 회장은 "KB금융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누 대표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한다"며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에서 카누 남북 단일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해외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해도 신고해야

금융꿀팁 200선

금감원 '외국환거래법규' 안내

▣ 해외직접투자 시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의무 대상
① 지분투자(경영 참여 목적으로 투자비율이 10% 이상이거나,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임원파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②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 등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기계나 설비 등으로 출자할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물로 투자하는 것도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투자했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매각해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출자해 지분율이 20%가 됐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꿨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B씨는 올해 2월 홍콩의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700만원이나 물었다.

현지법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주자가 지분을 양수했다면 이 역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처음 투자에 나설 때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이나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거주자는 지분을 전부 매각해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

NH농협은행 비대면 적립식 펀드 가입 이벤트

NH농협은행은 8월 말까지 비대면으로 적립식 펀드에 신규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인생(人生)펀드 만나러 갑니다'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인터넷뱅킹이나 NH스마트뱅킹, NH금융상품마켓에서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고,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와 목표 수익률을 등록한 후 응모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현금 5만원을 제공(당첨 펀드계좌로 입금)한다. 당첨자는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금융상품마켓 이벤트 당첨자 발표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NH농협은행의 다양한 비대면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성향에 적합한 인생펀드를 소개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와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기업은행 'IBK창공 구로 1기' 창업기업 모집

최대 5000만원 초기투자비 등 지원

IBK기업은행이 'IBK창공(創工') 2호점인 구로센터 개점을 앞두고 'IBK창공 구로 1기'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IBK창공은 창업기업이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융자, 컨설팅, 사무공간 등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센터로 지난 해 12월 마포에 1호점을 열었다.

기업은행은 선발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의 초기투자, 저금리의 운전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이들 중 우수기업을 선발해 최대 5억원의 후속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 국내·외 판로개척, 엑셀레러레이터 씨엔티테크와 연계한 1대1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희망기업에게는 공유오피스 형태의 사무공간도 무료로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창업 7년 미만의 기업으로 1차 서면평가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면접, 2차 심화 대면평가를 거쳐 총 20여개의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기업의 혁신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서 양식, 제출서류 등 모집관련 자세한 내용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IBK창공 마포센터 1기 모집에는 399개 기업이 지원해 약 20대1의 경쟁률을 뚫고 20개 기업이 선발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방을 포함해 센터를 추가로 열고 22년까지 총 500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